

[讨论稿]

“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: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?”

박봉순 (국민대)

보내주신 논문 흥미롭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. 본고를 통하여 시진핑 집권 3기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예상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‘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’에 관련하여 교수님의 여러 의견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또한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여러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‘시진핑 집권3기’에 대하여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‘시진핑 집권 3기’ 또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시진핑 집권 10여년의 시간동안 중국이 보여준 태도(강경한 태도를 통해 한반도를 길들이기)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의 국내 사정과 맞물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여겨집니다.

다음은 이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첫째,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과 뜻을 함께 하는 여러 논평들의 논거와 반대되는 의견은 결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 또한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방안에는 무엇이 가능할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

둘째, 본고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진핑이 주장하는 ‘공동부유(모두 부자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)’ 정책이 ‘시진핑 집권 3기의 주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? 이 ‘공동부유’정책 속에는 많은 규제가 등장합니다. 이러한 규제들이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

셋째, 제로 코로나를 표방하던 중국은 현재 ‘백지시위’를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에 당

황하고 있는 듯도 보입니다.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작은 틈이 큰 제방이 무너트리는 형국일 것입니다.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정부는 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들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며, 이러한 모습은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, 특히 한국과의 외교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?
감사합니다.